

# 보조사업·민원 ‘똑똑 알림톡’ 시행

장수군, 도내 최초 보조사업 신청 안내~처리·각종 민원 단계별 상황 알림 제공

장수군은 민원인에게 보조사업부터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처리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8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보조사업 신청 안내부터 처리는 물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를 마칠 때까지 단계별 상황을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정산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다.

군은 군민들에게 유용한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사업 정보를 신청 단계부터 정산까지 모든 상황을 제공하며 알림톡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문자 메시지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민원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새물행정시스템과 연계·구축해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법



장수군은 민원인에게 보조사업부터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처리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8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담당자 지정 △보완·보정 요청 및 완료 △처리기간 연장 △처리 완료까지 민원 처리의 모든 단계를 안내한다.

군은 처리기간이 3일 남은 민원에 대해 담당자에게 ‘민원사전에고’ 알림톡을 발송해 민원 처리 기간의 신속도 향상을 유도한다.

관리자가 부서 전체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원처리 현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 전체의 민원 관심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시작이다”며 “보조사업 및 민원 처리 알림톡 발송으로 그동안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도를 높일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로 군민 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료

표창장 수여·비전 공유 등 나서

한국농촌지도자 진안군연합회(회장 박순서)와 한국생활개선회 진안군연합회(회장 양희연)는 6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두 단체의 화합을 위한 ‘2025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군의장, 김덕재 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형단 생활개선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박순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자기 진작을 위해 17명에게 도 연합회장 및 군수 표창 등 6부문의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후 이어진 화합 한마당에서는 지역농업의 중심축으로서 두 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특별종합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시작된 3주간의 건강검진은 아동들이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아가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진행된다.

검진 항목은 최추측만증을 비롯해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신체발달 검사는 물론, 구강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까지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으로 구성된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하기 쉬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맞춤형 건강관리방안도 제공될 계획이다.

김원식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드



림스타트 친구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는 필수”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6일 무주 장날을 맞아 반딧불시장 일원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캠페인’을 펼쳤다.

## 무주군, “소비로 응원하세요”

반딧불시장 일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독려 캠페인 펼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전복 지역 1위에 이름을 올린 무주군이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6일 무주 장날을 맞아 반딧불시장 일원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민들에게 소비쿠폰 제도를 알리고 소비를 독려해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장 상인 등 20여 명이 함께 관련 현수막을 들고 안내문을 배부하며 소비쿠폰 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상인 김 모 씨(62세, 무주읍)는 “요즘 마을 방송에서 하루에 몇 번씩 나오고 해서 그렇지 소비쿠폰 지급 정보

다는 장사가 잘되는 걸 느낀다”라며 “2차 소비 쿠폰까지 해서 올해는 좀 숨통이 트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5일 기준 전체 대상자 2만 2,685명 중 2만 1,942명(96.72%)에게 소비쿠폰 지급을 완료했다. 지급 규모는 약 48억 원이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가맹점에 완전히 풀리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캠페인은 물론, 이장회의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도 소비쿠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고향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진안군은 귀향에 관심 있는 진안군 출신 출향민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고향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향민들의 귀향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에게 진안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귀농 귀촌 정보를 얻고,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이며 진안고원치유숲에서 진행된다. 귀향에 관심 있는 진안군 출신 출향민 및 그 가족(친척 포함) 5가구를 모집하며 1인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향 탐색, 선배 귀향인 및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영농 체험이 있다. 또한 귀산촌 입문 교육과 귀촌·귀향 사례 탐방, 진안고원길



오프 구간 걷기 등 감성 체험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귀농귀촌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8월 20일 금요일까지 네이비폼 또는 전화(063-433-0243)로 접수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진안고원치유숲 펜션 1가구 1실이 제공되며,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식사는 점심이 로컬식당 방문을 통해 제공되며, 조식 및 석식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 통

#### 진안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지도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방위체계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자리이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 을지연습’에 대비한 훈련계획과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보고 등 방위태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육성발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으로 제57주년 예비군의날을 맞아 육군참모총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최선

장수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여름철 휴가객이 집중되는 주요 유원지 인근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캠핑, 야영 등으로 길잡이나 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